

The Credit

LS Edge

Investment Strategy | 투자코멘트 | 2026. 10. 23

Meta 3Q26: FCF 적자 전환, 리스 약정 확대

Credit | 박지빈 | jjibin@ls-sec.co.kr

투자 확대가 현금창출력 개선을 상회하며 FCF 적자 전환

Meta는 2026년 Capex 가이드선 하단을 1,300억달러→1,350억달러로 상향하고, 상단은 1,450억달러로 유지했다. 3분기 OCF는 327.9억달러로 전분기 대비 9.3억달러 증가했지만, 금융리스 원금 상환을 포함한 Capex는 349억달러로 38.3억달러 증가했다. 이에 FCF는 전분기 7.8억달러 흑자에서 21.2억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현금창출력 개선보다 투자지출 확대 속도가 더 빨랐던 요인이다. 3분기 누적 Capex가 858.2억달러라는 점을 고려하면 연간 가이드선 하단에 도달하기 위해서 4분기에도 491.8억달러를 집행해야 한다. OCF가 이에 상응해 증가하지 않으면 연말 FCF적자 폭은 추가 확대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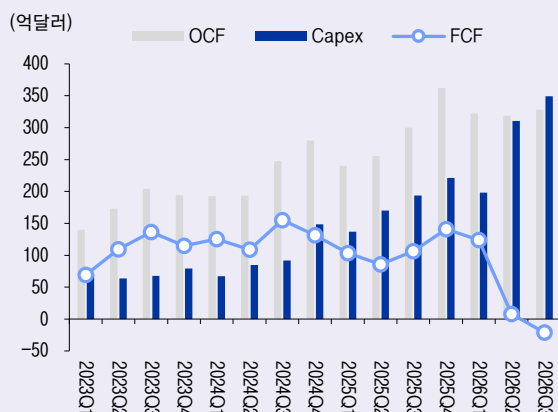
리스의 재무상태표 편입과 향후 지급약정의 동반 확대

3분기 말 운용리스부채는 311.7억달러로 전분기 대비 25.2억달러, 운용리스 사용권자산은 265.8억달러로 25.9억달러 증가했다. 두 항목의 동반 증가는 기존 미개시 리스 일부가 개시되면서 재무상태표에 편입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동시에 미개시 리스 약정은 3,557.3억달러로 전분기 대비 767.4억달러(680억달러는 기존 공개된 7월 약정) 증가했다. 일부 계약이 개시됐을 가능성에도 향후 지급약정이 추가 누적된 셈이다. 비취소 계약상 약정은 4,545.2억달러로 1,052.1억달러 늘었으며, 특히 2027년 지급분이 816.5억달러에서 1,241억달러로 증가했다. 비연결 JV를 통한 조건부 부담도 확대됐다. 7월 Texas 데이터센터 JV가 추가되면서 JV 최대손실노출은 전분기 대비 223.7억달러 증가한 684억달러를 기록했다. 이 중 최대 잔존가치보장은 414.9억달러로, 리스 미개시·종료와 자산가치 하락 등 지급 조건이 충족될 경우 현금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유동성 완충력은 유지되나 향후 외부조달 부담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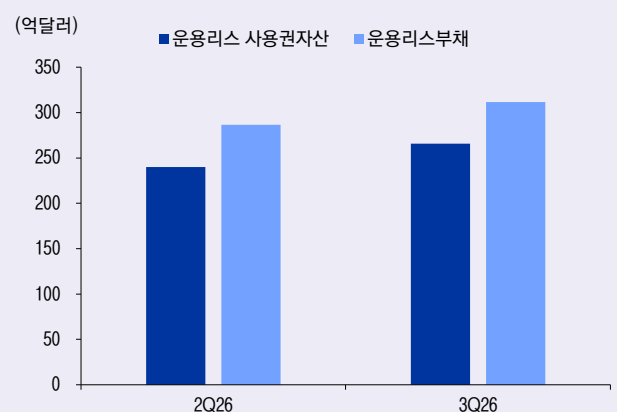
메타의 신용도는 견조한 현금창출력과 3분기 말 현금·현금성자산 및 유가증권 824.5억달러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다만 Capex 확대에 따른 FCF 적자 전환에 더해 2027년 지급약정도 증가하면서, 향후 영업현금흐름에서 투자·계약상 지출을 충당할 뒤 남은 자금은 줄어든 가능성이 높다. 미개시 리스의 순차적 개시는 이미 약정한 부담이 실제 임대료 지급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며, 장기 계약의 누적은 투자 속도를 조절해 현금을 보존할 여지를 제한할 수 있다. 향후 크레딧 판단의 핵심은 광고사업의 현금창출력 개선이 확대된 투자·지급 부담을 흡수하는지다. FCF 적자가 지속될 경우 외부조달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어, 현금성자산 감소 속도와 추가 차입 규모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림1 Meta OCF·Capex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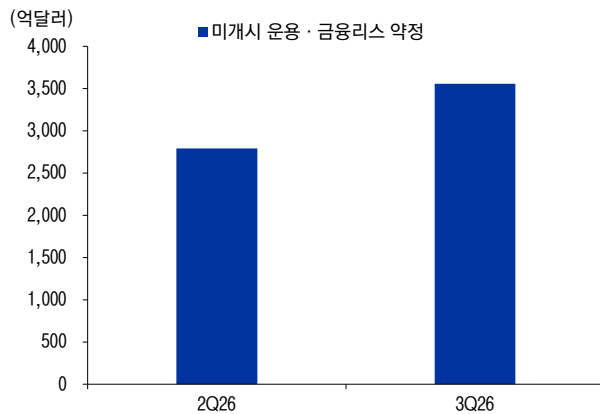
자료: Meta,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운용리스 사용권 자산 및 부채 증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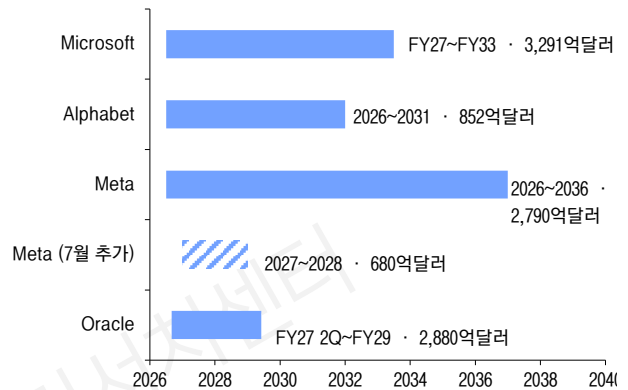
자료: Meta 10-Q,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미개시 리스 약정 규모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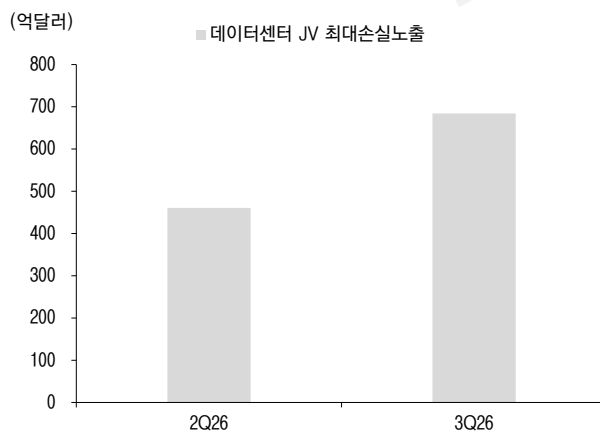
자료: Meta 10-Q,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Hyperscaler 미개시 리스 규모 및 개시 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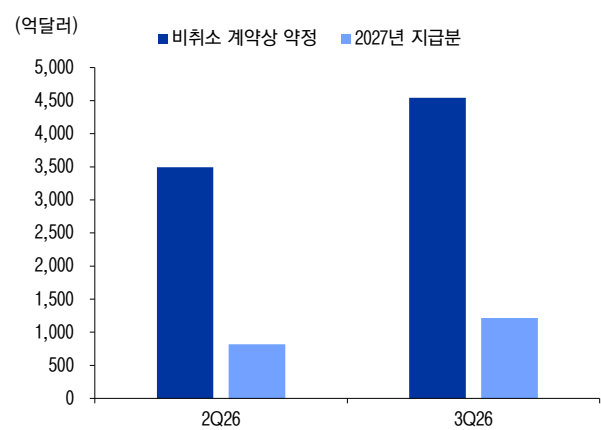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JV 최대손실노출 확대



자료: Meta 10-Q,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비취소 계약 약정 및 2027년 지급분



자료: Meta 10-Q, LS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박지빈).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의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